

사설

온 인류가 평화롭게 잘 살지 않겠는가

내 편과 내 편. 수많은 형태의 편 가림이 존재하고 있다. 동물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식물 세계에서도 존재한다. 군락지가 그걸 말해 주고 있다. 일찍이 미국의 사회학자인 윌리엄 쉘너는 내집단과 외집단이라는 개념으로 편 가림을 설명했다. 쉘너는 내집단은 '우리'라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했다. 때문에 집단에 속하는 성원들의 유대가 강하다. 그래서 동 집단에 속한 성원들은 긍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외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념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집단은 외집단과 경쟁하거나 충돌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내집단에 속하지 않는 외집단에 대해서는 늘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집단은 가깝게 지내는 듯하다가도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

예를 들면 내집단이 전라도 사람이라면 평상시 때는 경상도 사람들과도 그럭저럭 잘 지내다가 선거 때면 되면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성향으로,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성향으로 갈라져 버리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이웃으로 잘 지내다가도 선거 때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는 이성이 끼어들 틈이 없다. 오로지 패거리의 식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서는 결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지역감정이 사라질 리도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역감정인가. 지역감정으로 보통 사람들이 큰 덕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도 이런 소아병적 의식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서글픈 일이다. 그런데 이런 편 가림은 아주 작은 집단 속에서까지도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예를 들면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뉜 편 가림이 같은 전라도에서는 광주·전북·전남으로, 광주는 다시 직강·동호화·종교 등으로, 세분화를 거듭해 가다보면 집단 대 집단으로 더 핵분열해 가면 같은 가족 내에서도 형제자매들 개개인의 가정으로 편 가림이 이뤄진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이 내 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편 가림의 종착역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들은 내집단을 응집시키기도 하지만 와해시키기도 한다. 내부적 갈등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 없는 편 가림에 물두하지 말아야 한다. 합리적인 사고로 매사를 운위해가자는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된 듯하다. 그중 하나가 각종 파벌싸움이다. 날이면 날마다 이념에 따라, 정당에 따라, 기타 등등의 형태에 따라 상호 간에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영일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는 각국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런데도 날마다 내부에서 서로에게 각종 부정적 뒷칠을 해가면서 공격해야 하겠는가. 제발 이리저리 말자. 제대로 된 이성을 찾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상대편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보는 매우 년센스다. 이런 부정적 생각들은 결국 우리들 모두를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자. 먼저는 가족이다. 그다음은 친인척이다. 이렇게 점점 확대해가면서 사랑을 주고받다 보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모두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랑의 향기가 퍼져가다 보면 온 인류가 평화롭게 잘 살지 않겠는가.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종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찬 편집국장 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부700원

아무리 악독한 인간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선으로 대하고, 역사상 아무리 잔인한 독재자라도 자식들에게만큼은 관대하게 행동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자상정(人之常情)이라 간주하여 대개는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녀들에 대해 독하게 처신했던 철학자들이 있다.

강성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버 강성률 철학티비



철학자와 자녀(3)

를 고아원에 맡긴 일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머니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 루소는 아버지와 고모의 손에 의해 양육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과 같은 소설들을 읽혀 그를 교육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와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아버지가 퇴역한 프랑스 대위와 싸움을 한 후 처벌을 피해 제네바(스위스 제 2의 도시)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린 루소는 외삼촌에게 맡겨졌다가 다시 한 목사의 집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도 길지는 않았다. 어느 날, 목사의 여동생이 아끼던 빛이 부러진 채 발견되자 그

가족들은 루소를 범인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루소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루소는 재판소 서기 밑에서 필사(筆寫, 베껴 쓰는 일) 견공업을 하기도 하고, 한 조각가의 집에 들어가 도제(徒弟, 스승의 밑에서 일하는 직공) 일을 맡기도 한다. 그런데 이 조각가는 사정없이 그를 구타해했고, 루소는 그 집에서 아스파라가스(고급 채소) 라든가 사과 같은 것을 훔쳐 먹는 것으로 양갈음을 한다. 또 아무런 루소는 돈을 팽팡 털어 책을 빌려보곤 했는데, 주인은 책만 보면 빼앗아 불태워버리곤 하

였다. 그 사이 니옹(제네바에서 북동쪽으로 25km 떨어진 도시)으로 도망간 아버지는 53세의 나이로 재혼을 한다. 14살의 루소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후 서로 만나지 않는다.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본인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기이한 운명은 루소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원인이기도 했다.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 당시 파리에 공립 고아원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기도 했다. 신생아(新生兒)의 3분의 1 아이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루소가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버린 일은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그런지, 훗날 루소는 이에 대한 죄책감과 변명을 곳곳에 남기고 있다. "가난한 일도, 체면도 자식을 키우고 직접 교육시키는 일로부터 그를 면제시켜 줄 수는 없다. 그토록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자에게 예언하건대,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통탄의 눈물을 쏟게 될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 투고

아파트 화재 대비, 대피요령 숙지하자

최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했다. 숨진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은 모자(母子)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는 주로 연기 흡입이나 화상, 추락(대피 중 사망) 사례가 많다.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화재 사망자의 행

동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피 중 사망하는 경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화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내에 대기하며 구조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자택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승강기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나 자택 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염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평상시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피난시

설의 유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방화문으로 이뤄져 있는 대피공간과 창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구성된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화재 원인에 따라서 미처 대피할 수도 없어 사망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 일반적인 대피요령을 익혀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가져보자. 고홍소방서 과역 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음력 7월 17일)

48년생 주춤하는 사이 기회는 달아난다. 60년생 이루고 싶던 꿈이 눈으로 보여진다. 72년생 늦게 오는 반은 이별이나 대신하자. 84년생 나라 아이기 한귀로 흘러내려. 96년생 무뎠던 청춘 날은 세상 향해 가자.
49년생 고마움이 더해진 제안을 들어보자. 61년생 말하는 지랑보다 진짜를 보여준다. 73년생 쉽게 버리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85년생 글 쓰는 경의감 약자 편에서 아한다. 97년생 진리 말이 많았던 행복과 만나진다.
50년생 든든한 응원군이 배경이 되어 준다. 62년생 부끄럽고 떨리는 사랑을 고백하자. 74년생 잠시 오는 위기가 강하게 맞서보자. 86년생 울다 하 는 방식을 증명할 수 있다. 98년생 책에 없는 공부로 열심해야 한다.
51년생 목은 때 벗기고 새로움을 향해 가자. 63년생 복이 넘칠까 귀한 선물을 받아보자. 75년생 경직했던 노력이 세상에 알려진다. 87년생 준비했던 계획 출발선에 서보자. 99년생 홀로서기 시기 날개를 펼쳐보자.
52년생 나설 때까 애니면 뒤로 숨어야 한다. 64년생 장사로 하지 마라. 신리를 얻어보자. 76년생 근심 박수에 청원이 쏟아진다. 88년생 글 쓰는 소리로 자신을 쌓아보자. 00년생 보조 역할도 자금으로 해야 한다.
53년생 즐거우면 그만 체면 따위 던져. 65년생 변화하는 초심 각오를 다시 하자. 77년생 여럿 중에 으뜸 특별함을 보여준다. 89년생 작지만 소중한 역할이 맡겨진다. 01년생 종이 가지고 있기에 확신을 더해보자.
54년생 화를 잠재우는 경쟁이 되어보자. 66년생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보자. 78년생 관허하는 합자랑 손해가 배가 된다. 90년생 아리기에 서위로 계급장이 달라진다. 02년생 따끔한 지적을 부끄럽게 받아내자.
55년생 다시 외로운 사랑 손가락을 걸어보자. 67년생 절로 배가 부른 호사를 누리보자. 79년생 시간의 진리 기다리면 복이 온다. 91년생 외롭고 쓸쓸했던 부지를 벗어난다. 03년생 백 잡재리 성격표 곳을 세워보자.
56년생 갈려버려 하지 마라. 기진 걸지켜. 68년생 대비 같은 도움이 급한 불을 꺼준다. 80년생 부자 된 곳간 당산당산 춤을 추자. 92년생 못자 하 는 농담 잠수만 꺾여진다. 04년생 서두르는 욕심 조라하게 보여준다.
57년생 얼굴 모르던 손님 친구가 되어간다. 69년생 분명한 선 전기 흑백을 그려. 81년생 여전히 불안해도 처음을 지켜내자. 93년생 멀리 있는 방법 끈기로 맞서보자. 05년생 간절함을 더해야 허락을 받아낸다.
58년생 해서는 안 될 말 탄청을 피우보자. 70년생 안심라라 대담 민씨가 불러진다. 82년생 거절은 아뻐하게 뒤끝 남기지 마라. 94년생 화살표 방향 거침없이 달라. 06년생 은근히 오는 유혹 예뻐게 받아내자.
59년생 사서 하는 고생 불편함을 감수하자. 59년생 낯설고 힘들어도 포기하는 금물이다. 71년생 시련 시련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83년생 스쳐 가 는 인연 인명임을 알아. 95년생 어렵게 내린 결정 믿음을 지켜내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